

2월 26일(월) / 요 13-15장

▶**내용요약:**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을 씻기는 섬김으로 표현하셨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섬김으로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기를 바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길을 걸어가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는 것임을 잊지 말자.

▶**질문:** 우리는 스스로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하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누리셨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신다.

2월 29일(목) / 요 21장

▶**내용요약:**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셨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당부하셨다. 모든 사역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은 그분의 성도들이다.

▶**질문:** 나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하기:**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한다. 그리고 맡기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이나,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오로지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한다.

3월 3일(주일) / 수 9-12장

▶**내용요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중부를 공략하고, 이후 남방과 북방에서 전쟁을 전개하였다.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것은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되었다. 단번에 적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12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 승리한 전투와 정복한 땅들이 나오며, 그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일단락된다.

2월 27일(화) / 요 16-18장

▶**내용요약:** 예수님은 십자가가 다가올수록 사명에 집중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그 관계의 복을 그들로 누리게 되길 원하셨다.

예수님은 잡혀가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잡혀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를 시인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생각하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으며, 그 간구의 기도는 응답 될 것임을 약속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님께 바로 기도드릴 수 있다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감사하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즉,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3월 1일(금) / 수 1-4장

▶**내용요약:** 새로운 리더로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에게 주어진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와 함께 하시며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는,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질문:** 하나님은 왜 요단강에서 각 족속들이 큰 돌 하나씩을 가져오도록 하셨는가?(4장)

▶**생각하기:** 그 돌들은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돌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알리는 돌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세대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이 와중에 기브온 족속은 와서 종으로 받아들라고 하여서 화친조약을 맺었다.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긴 했다.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길는 사람들이 되었다.

▶**질문:**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에 숨어 있던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 군 지휘관들이 그 왕들의 목을 밟게 하였다.

2월 28일(수) / 요 19-20장

▶**내용요약:**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이르게 할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예수가 스스로를 왕으로 높였고, 그것은 시이저에게 반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유대인들이 하자 사형당하도록 내어주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마지막 숨이 멎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다.

▶**질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기:** 예수님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가 받으신 고난의 흔적이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하고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3월 2일(토) / 수 5-8장

▶**내용요약:**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호와와의 군대장관은 나타나서 그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로서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거룩한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에서 패배하였다. 이 일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사 일어난 일이었다.

▶**질문:** 하나님은 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그토록 진노하시고, 엄중한 형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하는가?(7장)

▶**생각하기:**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부터 불의와 불순종이 용인된다면, 그 일은 뿌리에서부터 썩을 것이다. 하루의 시작이, 새 학기의 시작이, 임기의 시작이, 그리고 모든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자.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10장)

▶**생각하기:** 여호수아는 이 일을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군 지휘관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성취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